

사실·칼럼

- ▶ 사실
- ▶ 이진영칼럼
- ▶ 국장석에서
- ▶ 모성은칼럼
- ▶ 정하성칼럼
- ▶ 중부칼럼
- ▶ 데스크칼럼
- ▶ 중부시론
- ▶ 정책포럼
- ▶ 경제포럼
- ▶ 가족시대
- ▶ 문화의창
- ▶ 중부단상
- ▶ 의정칼럼
- ▶ 선거이야기
- ▶ 기자수첩
- ▶ 스포츠칼럼
- ▶ 동서남북

중/부/마/당
독자들과 함께합니다

오/피/니/언
각계인사들의 오피니언

테/마/기/획
주제별 기획특집

문화의창

일상에서의 예술과 문화복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예진흥정책을 새롭게 구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획 실행된 새 영역의 문예진흥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기도의 문예진흥을 위해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은 문예진흥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종들이 상호 협력하며 공생 진화하길 기대하였다. 그래서 분절되거나 닫힌 생태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하며 열린 생태계가 될 수 있게 역점을 짚어 막힌 곳은 뚫고, 치우친 것은 조율하였으며, 필요한 것은 새롭게 생성을 유도하였다. 이 가운데 새 영역으로 개척된 것이 일상에서의 예술과 문화복지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였으며 차세대 주인공인 청소년과 문화소외지역의 잠재적 예술애호인들의 문예활동을 촉진하는 데 힘썼다. 이같은 사업이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업과 변별되는 것은 지원 사업의 태도, 자세, 지향 그리고 접근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문예지원 사업을 함에 앞서 저소득층 밀집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에 소재한 12평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12곳을 꼽았으며, 사업 파트너로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들과의 연계 활동을 꾀하였다. 그들과 간담회, 사업 설명회, 공동연수를 하며 그 지역에 잠재된 문화욕구를 청취하였으며 경험 있는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복지사들이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수렴하여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들에게는 악기교습활동이,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에게는 가가호호 방문 문화예술 지원활동과 문화예술 나들이가 실행되었으며, 복지관이 주관한 마을잔치에 전문극단이 투입되어 맞춤형 공연을 펼쳤고, 연말에는 어린이와 악기교습을 지도했던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었다. 작은 음악회도 보여주기식 음악회가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 마을주민과 음악교사들이 함께 즐기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음악회로 꾸러졌다. 올해에는 여기에 더하여 성인들을 위한 문예강좌와 인문학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꾸러지는 문예지원 사업의 주 콘셉트는 지역구성원의 자존감 향상과 예술로 빚어진 총명한 하루 맛보기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와 음악과 연극 그리고 춤과 미술이 어우러져 있는 인정 많고 인심 좋은 마을 만들기에도 일조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예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이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시·군마다 편차가 크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경기도에는 120여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 가운데 11곳의 도서관을 파트너로 하여 시범사업을 하였다. 그동안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는 목표 하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등 다양한 사업이 있었지만 현지 주민이 지역 실정과 문화욕구를 고려하여 공연단을 초청하기에는 여건이 속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도서관이라는 특수시설에 알맞은 공연물을 선별하여 도서관에 추천하였으며, 도서관에서는 작품기획자 또는 연출가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소속 도서관의 실정과 욕구에 부합되는 작품을 선택하였다. 일명 맞춤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경기문화재단은 중개하고 선별된 작품의 공연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50여 곳의 도서관에서 이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 등등 사회소수자를 위한 문예지원활동은 사회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소집단 또는 지원단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다각도로 뒷받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회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극화한 작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소수자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한 전문예술집단의 창작품을 별도로 공모하여 지원한 다음, 사회소수자 네트워크 축제 때 발표하여 다중과 향유할 수 있게 2년째 매개해 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예진흥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몫 또한 확장되며 보다 섬세하고 심도 있는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문화예술인이 지역 공동체에서 당당하게 한 몫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예술가들이 씬 없

· 홈 > 사실·칼럼 > 문화의창

베스트 클릭

- 이명박 대통령 仁川방문 의미...
- 로또 1등 21억5천만원씩....
- 로또 291회 1등 7명.....
- 실종 강하 모녀 사건 일지
- 광고인도시 분양가 인상 불가...
- 김문수지사, 현정부 인사정책...
- 초등학생이 강도살인...8년...
- '안상수'의 꿈, 仁川 예로...
- 도내 교원 명퇴 급증 '퇴직'...
- 동탄 메타폴리스 재검토에 임...

지역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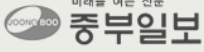
- 부천 중부서,유공경찰관 표창
- 안산 고잔1동, 영주시 봉현...
-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장석 ...
- 새일골 - 한기선 한강유역청...
- 군포, 토지분할신청 4회방문...
- 파주교육청 역사 여행 무료 ...
- 광주, 지방공사 자본금 증액...

이 생성되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작품을 창출할 수 있게 온 사회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주어야 할 때다.
양원모/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게재일 : 2008.07.02

독자비평 쓰기

로그인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웹메일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충처리인 제도

Copyright © 2006 Internet Joongboo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joongboo.com for more information